

# 극재 어윤적(1847~1933) 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서간도 망명가족의 삶

문희순(충남대학교 연구교수)

## - 목 차 -

1. 머리말
2. 극재 어윤적 가의 서간도 망명
3. 서간도 왕복 한글편지에 형상화된 망명 가족의 삶
  - 3.1. 魚允績(서간도): “서간도 황소 빅초의 고향 원뵝 되기는 용이하고”
  - 3.2. 魚氏(연천): “청국언 어디며 서간도논 어디야”
  - 3.3. 魚氏(김포): “동그 남미간 이 세상의셔는 상봉할 수 읍스온니”
  - 3.4. 魚順伊(갈평리): “어네 세월의 다시 형제 숙질을 뵈올난지”
  - 3.5. 어능녀(방터골): “잠들기 전 이질 슈 읍사오이다”
4. 어윤적 가 한글편지의 특징 - 결론을 겸하여

## 1. 서론

1910년(경술) 2월 16일 아침 부강 용포역. 克齋 魚允績(1847.11.2.~1933.10.12) 가족을 포함한 세 집안 남녀노소 권속 수십여 명이 모두 기차에 올라탔다. 자명종은 8시 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때에 강바람은 쓸쓸히 불어오고 음산한 비는 무겁게 내려 고국을 떠나는 이들의 마음은 더욱 처참하기만 하였다.<sup>1)</sup> 전송하러 나온 이들과 손을 붙잡고 옷깃에 흘린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기차는 조치원역에 다다랐다. 이후 각각의 기차역을 지나고 하차하며 지인들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sup>2)</sup> 부강 용포에서 신의주 까지 1,300여리의 장도였다.<sup>3)</sup>

\*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함중어씨 어임수(명희→기우→윤석→경선→영호→임수), 어경택(명희→준우→윤작→취선→영덕→범수→경택), 어경구(명희→준우→윤적→용선→영례→해수→경구)님의 도움이 컸다. 편지를 주고받은 방터골 질녀 어씨의 이름은 ‘어능녀’, 보은 갈평리 질녀 어씨의 이름은 ‘魚順伊’이다. 어능녀의 이름은 방손 어임수 선생이 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비석에서, 어순이의 이름은 증손자 송영래 선생이 호적대장 기록에서 각각 찾아내 주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1) 어윤적, 『극재일기』, 경술 2월 16일. “○十六日。朝。三家産卜裝載車上。○自鳴鍾八點九分時刻。三家眷集。一齊登車。于時。江風淒淒。淫雨霏霏。離懷悽愴。不覺潸然。” 이 날 망명길에 함께한 三家는 魚允績·金華鎮·閔正植 가족이다.

2) 어윤적, 『극재일기』, 경술 2월 16일~18일. “부강 용포(출발역) → 조치원 → 전의읍 → 소정리 → 천안읍 → 성환 → 평택 → 서정리 → 오산 → 병점 → 수원 → 군포장 → 안양 → 시흥 → 영등포 → 노량진 → 용산 → 남대문(16일. 남정동 金참봉 집에서 숙) → 용산 → 수산 → 일산 → 금촌 → 문산 → 임진강 → 장단 → 개성 → 토성 → 계정 → 잠성 → 간포 → 평산읍(태백산성) → 남천 → 남천 → 물개 → 신막 → 서흥 → 흥수 → 청계 → 마동 → 사리원 → 심촌 → 황주읍 → 흑교 → 중화 → 역포 → 평양(대동강) → 서포 → 순안 → 어파 → 숙천 → 만성 → 신안주(청천강. 17일.

2월 23일 오후,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압록강 중류에 배가 도달할 즈음 강풍이 크게 불고 파도가 세차게 일어 부인네들과 어린아이들은 거의 낮이 나가고 얼굴빛을 잃을 정도로 위태로움을 겪기도 하였다.<sup>4)</sup> 중국 땅 안동현에 도착한 일행은 쌍아지[賽馬集]<sup>5)</sup> 조선인이 경영하는 객주에서 다리를 실 수 있었다. 어윤적은 2월 28일 봉천부 본계현 감창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한 타국에서 더 이상 고국의 의관, 산천, 풍토, 인물을 볼 수 없는 현실을 접하고 비탄에 빠졌다.<sup>6)</sup>

어윤적은 고국을 떠나기 직전 조상들의 산소에 두루 참배하고 많은 사람들과 작별하였다. 이적·금수들이 들끓는 조국을 만부득이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찌할 수가 없구나[無可奈何]”·“아 슬프도다[嗚呼慟哉]”·“처창하도다[悽愴]”·“눈물을 흘뿌리지 않은 사람이 없도다[無不揮淚相別]”·“눈물로 헤어지도다[泣別]”·“더욱 슬픔을 금할 수가 없구나[益悲不禁]”·“심회를 억누르기가 어렵도다[心懷難抑]”·“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구나[生逢不逢未可知]” 등의 언어로 표현하였다. 특히 출발 직전은 큰집의 사촌형 魚允赫(1839.8.8~1910.2.13)이 생사를 넘나드는 와중이었다. 어윤적은 出疆之計 망명을 실현할 날을 목전에 두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어윤적 사후를 살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절박함에 대하여 기술하기도 하였다.<sup>7)</sup>

조선시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제 뜻을 시러 펴기 위한 편지 쓰기’라고 말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한글편지는 신분, 남녀, 노소의 분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소통의 매개물이었다. 어윤적은 일찍이 연천 누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족 간에 정을 통하기 위해서는 글자를 익혀야 하고, 글자는 ‘진서’ 보다는 ‘언문’이 더 낫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말을 평범하게 듣지 말라고 당부하였다.<sup>8)</sup> 가족 간 통정(通情)의 언어로서 한글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글편지는 소통과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한문편지 보다 훨씬 더 긴요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어윤적 가의 한글편지는 낱장편지 10여 건, 『萬里初程(만니초정)』<sup>9)</sup> 수록 17건이 남아 있다. 이 논문은 이들 한글편지 가운데 어윤적이 발신하고 수신한 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10)</sup> 이 연구를 통하여 일제에 의해 국권이 찬탈된 불안한 시대상황, 그리고 그 시대를

權明莢 가에서 숙) → 청산유 → 원흥리(~박천강) → 영미 → 운전평 → 고읍 → 정주 → 광산 → 노하 → 선천읍 → 동림 → 차련관 → 남시 → 양책 → 비현 → 백마 → 석하 → 신의주(종착역. 18일. 林載京 가에서 숙) → 渡鴨綠江(23일)

- 3) 어취선, 『가승』, 경술 2월 16일. “○十六日。早朝。三家什物。裝載火車。老幼數十人。齊登火車。車貫自蓉浦至新義州。一千三百餘里。大人五元四錢。小兒減半。”
- 4) 『극재일기』, 경술 2월 23일. “午後。才登舟解纜。及到中流。江風大作。波濤洶湧。舟中婦幼。喪魄失色。幾不能支。” 어윤적은 압록강을 건너면서 다음과 같은 한시를 남겼다. 『극재수고』, <渡鴨綠江>. “鴨江二月水如天, 孤帆遲遲遠走船. 去國元非吾所忍, 厭看疆土穢腥羶.”
- 5) 『극재일기』에서는 ‘쌍아지’, 류주석의 편지에서는 ‘씨마지’로 썼다.
- 6) 『극재일기』, 경술 2월 23일. “自此以後。不見故國衣冠·山川也·風土也·人物也。一皆生疎面目。可悲可嘆也。”
- 7) 『극재일기』, 경술년 2월 13일. “大宅兄患候。雖如此。然西計已決。產卜發送。眷屬待曉將發。則情理雖極迫切。搬行亦難停止。故不得奔救於患候。危甌之際。權凶切迫之狀。何可形也。”
- 8) 『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10]. “손즈덜 자라거든 글싸을 일켜 그 성명이나 하게하면 친척간의 통정이라도 하여 과이 막궤덜 아느리라. 심질더은 아모리 글싸 볼 겨을 업더리도 겨을 한가흔 씨의 언문을 보아 익키면 지금도 늦지 아니하이 아모조록 그러케하옵. 언문이 편지하기는 진서버덤 더 나흐니 범연이 듯지마옵.”
- 9) 『萬里初程(만니초정)』은 고흥류씨(1904.4.15.~1933.2.3.)의 친필로 편찬된 단권의 책이다. 고흥류씨는 어윤적의 손자 어영덕과 서간도에서 결혼하여 30세의 나이로 사망. 중국 땅에 묻혔다. 고흥류씨는 서간도 망명가족과 국내에 남아있는 가족 간에 주고받은 한글편지 17건을 필사해서 『萬里初程(만니초정)』 책에 수록해 놓았다.

저항하며 삶을 영위해 낸 함중어씨 망명가족의 한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 2. 극제 어윤적 가의 서간도 망명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행정·관리 임명권을 탈취하여 식민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군대가 강제 해산되고, 이에 따라 각지에서 항일의병운동이 봉기하였다.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촉발된 반일 감정은 의병 운동으로 이어졌다. 춘천에서 이소응, 제천에서는 류인석이 이끄는 항일 의병이 일어났다. 1910년 8월 경술국치를 당하여 대한제국은 일본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항일 운동가들은 국권회복을 도모하기위해 만주, 연해주, 미주 등으로 망명하였다. 어윤적 가도 이러한 비상한 시대상황 아래에서 서간도 집단망명의 길을 선택하였다.

어윤적의 사촌형 心齋 魚允奭(1846~1898)은 1895년 두 아들 魚敬善과 魚中善을 거느리고 의암 류인석(1842~1915)의 창익군 湖左義陣에 동참하였다. 어경선은 서간도로 망명한 스승 류인석을 따라 1898년 1월 서간도로 망명하여 抗日守義 생활을 함께하였다.<sup>11)</sup> 어윤적은 류인석과 동문수학하였고, 어윤적의 세 아들은 류인석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어윤적 가는 화서 이항로의 학문을 사사한 김평묵·류중교·류인석 등과 사제 동문 관계이다. 류중교와 류인석은 한말 화서 이항로 학파 의병 활동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로, 류인석 일가족은 서간도 평정산 난천자, 곧 오늘날의 요녕성 무순시 평정산진 난천자촌 회인현 出類頭 일대에 이미 정착하고 있었다. 류인석·류중교 가족의 망명이 어윤적 가의 집단 망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어윤적은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고덕리에서 태어났으나 죽산 미근평, 이천 이평, 문산, 속리산 봉비리, 청주 가덕 등으로 옮겨 다니며 거주하였다. 어윤적 가가 오백년 세거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을 떠나 충북 청원과 보은 등으로 이거하며 삶을 영위한 것은 근대격동기 서세동점의 시대상황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어윤적은 64세의 나이로 동생 魚允繹, 큰아들 魚聚善과 자부 경주이씨, 둘째아들 魚最善, 셋째아들 魚教善과 자부 경주손씨, 넷째아들 魚用善과 자부 안정나씨, 손자 魚泳德 등 약 20여 명의 남녀노소 가족을 이끌고 집단 망명을 결행하였다. 어윤적은 국권이 일제 치하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국내의 모든 전답을 정리하여 서간도 집단 망명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화서학맥의 항일 노선과 궤를 같이 하는 항거였다.

어윤적 가 사람들의 1910년 2월 간도 망명 이후, 어윤적과 어취선 부자를 위시한 많은 가족들은 중국에서 죽음을 맞이하여 중국 땅에 묻혔다. 어윤적 후손들이 환국한 시기는 대략 1938년~39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어윤적의 며느리 경주이씨(1892~1966)의 노력이 컸다고 한다. 경주이씨는 魚聚善의 부인으로 서간도의 망명생활을 접고 환국을 지휘한 사람이다. 함중어씨 후손들은 이 경주이씨를 ‘만주할머니’라고 부른다.<sup>12)</sup>

한편 어윤적 가에서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 건국포장 魚允奭, 독립유공자 건국포장 魚敬善(1869~1916), 독립유공자 애족장 魚大善(1871~1920), 독립유

10) 『萬里初程(만니초정)』 수록 17건의 편지 중 5건은 어윤적과 사돈관계에 있는 류주석의 편지이다. 류주석은 어윤적의 손부 고흥류씨의 친정아버지인데, 류주석이 딸 고흥류씨에게 발신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논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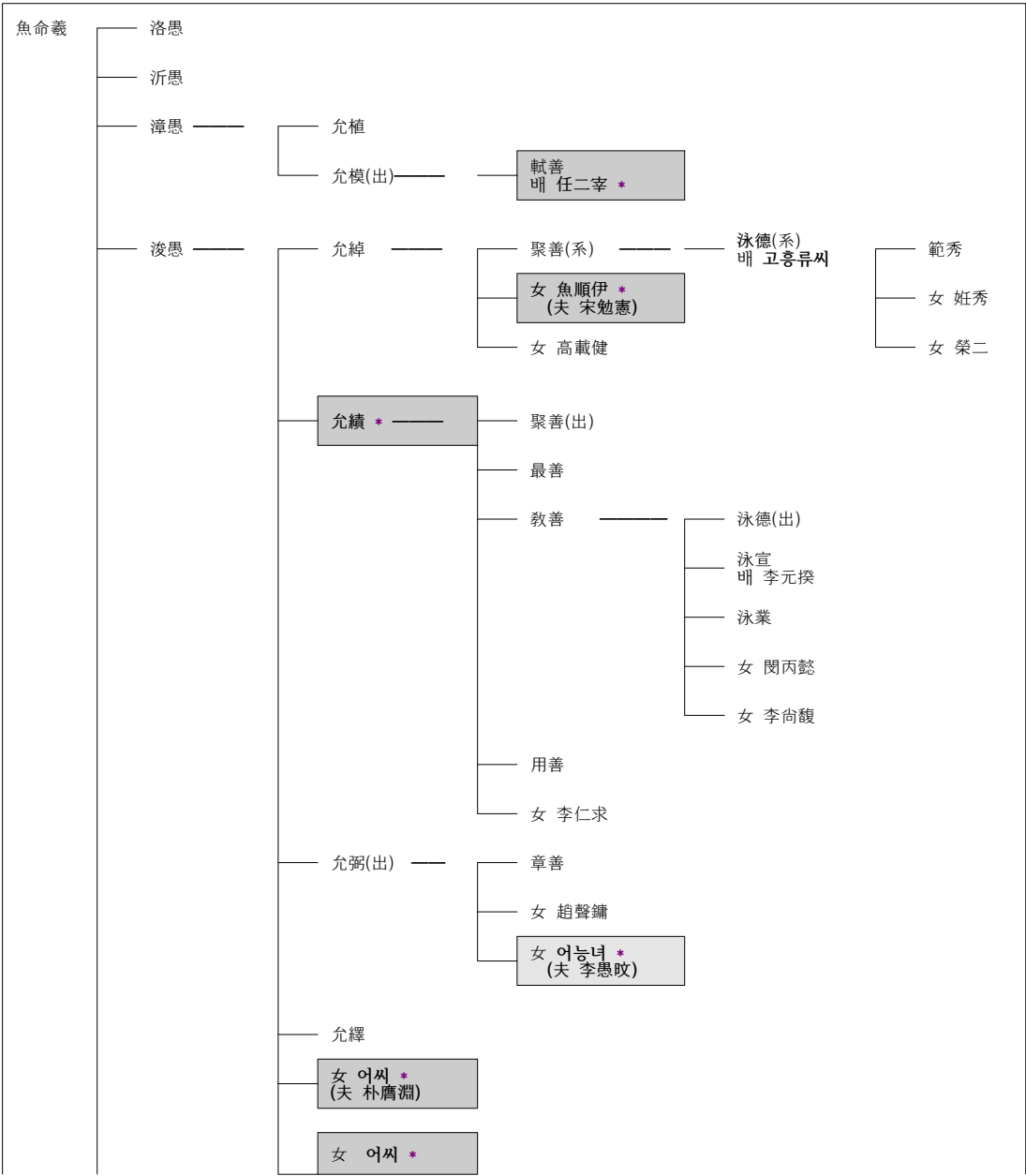
11) 어윤적과 어경선은 2005년 8월 15일 건국포장을 추서 받아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었다.(어임수 정리, 함중세승,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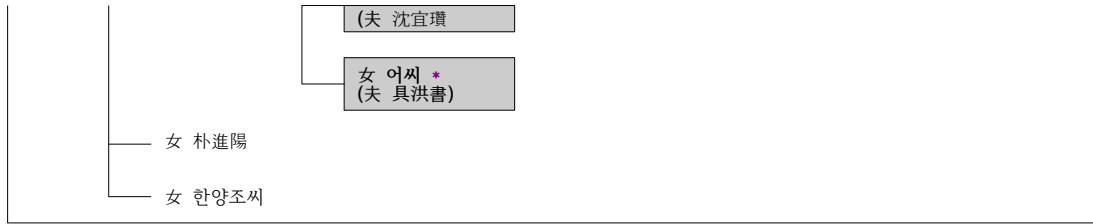
12) 어임수 선생 고증. 이때 한국의 짐불이 수레 속에 서간도 망명생활의 문헌들이 실려 들어 왔다. 이 문헌들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청원함중어씨가고전적자료]로 기탁되어 있다.

공자 건국포장 魚聚善이다. 혼인관계에 있는 독립운동 인물은 의병장 류인석(어영덕 부인 고흥류씨의 족속), 독립유공자 습재 이소응(어윤필의 손녀가 이소응의 종중손부), 독립유공자 송면현(어윤적의 조카사위), 독립운동가 건암 민정식(어윤적의 손녀가 민정식의 며느리), 독립운동가 박응연(어윤적의 매제), 독립유공자 이우민(어윤적의 조카사위), 독립유공자 이원재(어윤적의 손부 李元揆의 조부) 등이다.

어윤적의 『극재일기』에 의하면 망명지에서의 교류인물이 150여 명에 육박한다. 이러한 교류인물 중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어윤적이 직간접적으로 서간도 항일 운동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아래 표1은 어윤적 가 가계도를 한글편지 발·수신자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 표1 [한글편지 발·수신자 중심 어윤적 가 가계도](\*표시는 편지를 발·수신한 인물)





### 3. 서간도 왕복 한글편지에 형상화된 망명 가족의 삶

아래의 표2 [한글편지의 발·수신 현황]에서 번호 1~11, 14는 『萬里初程(만니초정)』<sup>13)</sup> 수록. 나머지는 낱장 편지로 소장되어 있다. 연도별 발·수신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2 [한글편지의 발·수신 현황(발신 연도순)]

번호	발신자(관계)	수신자(관계)	書頭	書尾	발신지(수신)	발신년도
1	어능녀 (질녀, 이우민 처)	어윤적(중부)	자근아바님전 상사리	방터골 질녀 서	미원 구방	× (1912년 추정)
2	함종어씨 (여동생, 박응연 처)	어윤적(오빠)	오라바님전 답상사리	연천 미제 서	경기 연천	1917.8.19
3	어윤적 (오빠)	함종어씨 (여동생, 구홍서 처)	냥지 미제 봉장	사형은 중국 봉천성 본계 현 전창 서신 부치노라	중국 봉천	1917.9.26
4	어윤적(오빠)	함종어씨 (여동생, 박응연 처)	미제 봉장 연천	중형은 중국 전창 서신 부 흐노라	"	1917.9.26
5	어윤적(중부)	어능녀 (질녀, 이우민 처)	질녀건 방터골	중부	"	1917.11.10
6	어윤적(중부)	魚順伊 <sup>14)</sup> (질녀, 송면현 처)	송집건	×	"	1917.11.10
7	어윤적(중숙)	任二幸(중질부, 어식선 처)	중질부건 기안 <sup>15)</sup>	×	"	1917.11.10
8	魚順伊 (질녀, 송면현 처)	어윤적(중부)	자근아바님전 답상살리	스질 상사리	보은 갈평	1918.1.6
9	任二幸 (중질부, 어식선 처)	어윤적(중숙)	아주바님전 답상서	기안 중질부 임씨 서	보은 개안	1918.1.20
10	魚順伊 (질녀, 송면현 처)	어윤적(중부)	자근아바님전 상사리	질녀 소리	보은 갈평	1918.2.14
11	魚順伊 (질녀, 송면현 처)	어윤적(중부)	자근아바님전 상사리	갈별 질녀 서	"	1918.11.25
12	함종어씨 (여동생, 심의찬 처)	어윤적(오빠)	오라바님전 상서	미제 상서	중화민국 봉천성 본계현	1931.3.8

13) 『萬里初程(만니초정)』은 어윤적의 손부 고흥류씨(1904.4.15.~1933.2.3.)의 친필로 편찬된 단권의 책이다. 고흥류씨는 柳周錫(1882~1955)과 전주이씨(1885~1917) 부부의 큰딸로, 10세 때인 1913년 일가족 망명길을 따라 서간도로 갔다. 고흥류씨는 1917년 윤2월 25일 14세 때에 망명지 서간도 出類頭에서 克齋 魚允績의 손자 魚永德과 결혼하였고, 30세의 나이로 요절하여 서간도에 묻혔다.

					감창 <sup>16)</sup> 조선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13	함종어씨 (고모, 심의찬 처)	어취선(조카)	족하보옵	고모 셔	"	1931.3.8
14	어능녀 (질녀, 이우민 처)	어윤적(중부)	자근아바님전 상사리	사질녀 상사 라	미원 구방	11.29 <sup>17)</sup>
15	함종어씨 (고모, 박응연 처)	어취선(조카)	족하보아라	고모 셔	경기 연천	1934.8.26
16	미상	어범수	통곡통곡 천만 의외에	이곳 소상	만주국 본계현 감창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1936.5.25
17	어순이 (시누이, 송면헌 처)	경주이씨 (올케, 어취선 부인)	형님전 상셔	식미 답상셔	만주 봉천성 본계호 감창 조선 충북 보은군 마로면 갈평	12.27 <sup>18)</sup>

■ 그림1 [본국에서 중국으로 보낸 편지의 봉투]



■ 표2 번호 13~14의 편지봉투      ■ 표2 번호16의 편지봉투      ■ 표2 번호 17의 편지봉투

- 14) 魚順伊. 어윤작의 장녀 함종어씨의 이름은 魚順伊이다. 魚順伊·宋勉憲 부부의 증손자 송영래(1947년생) 씨가 필자의 요청으로 호적 기록에서 확인하였다.
- 15) 기안(開安). 극재일기. 경술 1월 14일 편지. “入開安從侄家, 夕飯而歸.”
- 16) 번호 13~14 편지는 한 봉투 안에 두 건의 편지가 들어있다. 봉투 수신자 이름은 魚哲善으로 되어 있는데, 어취선은 魚聚善의 이명이다. 번호 13~14, 16, 17 편지는 편지봉투가 남아 있다.
- 17) 이 편지는 발신 년도가 없다. 어윤적이 사망한 때가 1933년 10월 12일이므로 이 편지는 1932년 이전에 쓴 것이다.
- 18) 이 편지의 봉투는 수신자 이름에는 ‘哀座’, 발신자 이름에는 ‘謹疏’로 되어 있다. 편지는 시누이 魚順伊가 올케 경주이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어순이의 오라버니 어취선이 사망한 때가 1936년 5월 3일이므로 연도 표시가 없는 이 편지의 발신 연도는 적어도 1936년 이거나 그 이후이다.

### 3.1. 魚允績(서간도): “서간도 황소 빅초의 고향 원뵈 되기는 용이호고”

『萬里初程(만니초정)』 수록 한글편지 17건 중 어윤적이 발신한 편지는 5건, 수신한 편지는 7건이다. 고흥류씨는 『萬里初程(만니초정)』에 시할아버지 어윤적이 1917년~1918년 사이에 발·수신한 서한을 필사하여 수록하였다. 이 때 고흥류씨 나이는 14세~15세 때이다. 발신한 편지는 중부 어윤적이 질녀 이우민 처와 송면헌 처에게, 친정오빠 어윤적이 여동생 박응연 처와 구흥서 처에게 쓴 것이고, 수신한 편지는 질녀 송면헌 처 魚順伊, 이우민 처 어능녀, 종질부 어식선의 처 임이재, 연천과 김포에 사는 여동생들로부터 수신한 것이다. 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슬프다. 어느 세월에 고국에 돌아가 선친 성묘하고 친척과 사우를 다시 만나 볼꼬? 흔백이 죽을 곳은 서간도 황사백초(黃砂百草) 벌판의 외롭게 떠도는 원통한 녀이 되기는 용이하고, 동방국 도리방원(桃李芳園)의 천륜의 즐거운 일을 펴기는 어렵도다. 압록강 물이 깊다하여도 망국지한을 어찌 다 흘리며, 봉황산 대나무가 많다하여도 회향지정(懷鄉之情)을 어찌 다 쓰리오?”<sup>19)</sup>(1917.11.10.)

② “사형(舍兄)은 세월을 헛되이 다 보내고 형제자질 수다한 딸린 식구들을 데리고 타향의 떠돌아 일정한 거처 없이 동서남북 유랑하여 질병이 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탄식우환 중 금년 농사는 다행히 낭패 없어 추운 겨울 탈 없이 지나갈듯 하니 아직은 걱정 없으나 내년은 또 어디로 갈지 정처 없으니 생애가 우습도다.”<sup>20)</sup>(1917.9.26.)

③ “슬프다. 월국(越國)한 지 거의 십년이되 놈의 칼집 속에서 세월을 보내어 비상(悲傷)간고(艱苦)하여 풍상(風霜)을 겪다가 이제는 오백년 부모국에 다시 가서 친산 성묘도 한 번 다시 못하고 강근지친(強近之親)을 대하여 무궁한 근심과 회포를 풀지 못하고 속절없이 타국 귀신이 되겠으니 하늘을 우러러 통곡 원통하다.”<sup>21)</sup>(1917.11.10.)

④ “어느 세월에 하늘이 열리고 날이 밝아지며, 풍량이 멈춰 좋은 바람을 타고 고국의 돌아가서 천륜낙사와 친척 정화를 기뻐할꼬? …(중략)… 나 같은 노물은 백번 죽어도 죽히 아깝지 않지마는 다만 한 되는 것은 형제 숙질 자손 남녀를 풍진 남북의 흩어 놓고 죽은 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sup>22)</sup>(1917.11.10.)

19) 『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3]. “실푸다. 어느 세월의 고국의 도라가 선친 성묘호고 친척 스우을 다시 만나 볼꼬. 빅이 스지호여도 서간도 황소빅초의 고향원뵈되기는 용이호고 동방국 도리방원의 천륜낙스 펴기난 어렵도다. 압록강 물이 깊다호여도 망국지한을 엇지 당 흘리며 봉황산 디가 만타호여도 회향지정을 엇지 다 쓰리오?”

20) 『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11]. “사형은 세월을 헛되이 다 보니고 형제자질 수다 소솔을 다리고 타향의 류리호여 정소업시 동서남북의 포박호여 질병이 몸의 떠나지 아니호고 탄식우환 중 금연 농사는 다행이 낭패업서 치운 겨울 안과할뜻 하니 아직은 걱정업시나 명연은 또 어디로 갈지 정처가 업시니 심이가 우습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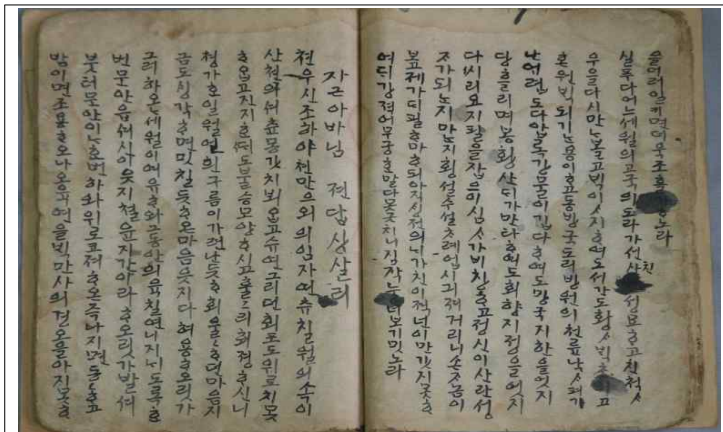
21) 『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2]. “실푸다. 월국한 지 장 근 십년의되 놈의 칼집 속의서 세월을 보내여 비상 간고호여 풍상을 겪다가 인제는 오백년 부모국의 다시 가서 친산 성묘도 호 번 다시 못하고 강근지친을 디호여 무궁한 수회를 풀지 못하고 속절업시 타국 귀신이 되깃시니 암천 통곡 원통하다.”

22) 『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1]. “어느 세월의 천기 일명호고 풍정낭식호여 조흔 바람을 타고 고국의 도라가서 천륜낙스와 친척 정화를 깃버홀꼬 …(중략)… 나갓튼 노물을 빅번 죽어도 부족석이언마

⑤ “칠십 여년 광음을 허비하고 아직 양계(陽界)에 있으나 말하는 송장과 다르지 않다.”<sup>23)</sup>  
(1917.11.10.)

어윤적은 1917년 11월 10일 고국에 있는 남녀 가족들 특히 여동생, 딸, 질녀, 종질부에게 일시에 편지를 써서 영결의 뜻을 알렸다.<sup>24)</sup> 요동 칠백 리 소슬한 바람소리, 사무치는 고향 생각에 늙고 쇠한 간장이 봄 눈 녹듯 녹아내린다는 것이다. 마름 풀과 버들가지처럼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이리저리 떠도는 자신은, 낮이면 산에 오르고 밤이면 뜰을 거닐며 하염없이 방황한다고 호소하였다. 어윤적의 ①의 편지는 종질부 임이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망국의 한과 고향에 돌아가고픈 그 마음을 압록강의 물로도 다 쏟아내지 못하며, 봉황산의 대나무로 붓을 만들어 쓴다하여도 다 못쓴다고 반문하였다. 망명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몸서리쳐지는 고독의 정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어윤적은 속절없는 타국의 삶에 대하여 하늘을 향해 통곡하였다. 슬프고, 우울하고, 통곡하며, 울부짖다가 자신의 생애가 우습다고 부정하는데 까지 이르게 되는 비극적 좌절의 서사이다. ②의 편지는 양지(용인)에 사는 여동생 어씨(구흥서 처)에게 보낸 내용으로, 일정한 거처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서간도에서의 유랑생활과 그에 따른 질병, 그런 정처 없는 자신의 ‘생애가 우습다’고 허허롭게 말하였다. 끝내 ⑤의 편지에서는 자신이 ‘말 하는 송장’에 다름 아님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어윤적은 이상의 한글편지에서 國亡家破의 불운한 시대와, 遊離漂迫 서간도의 떠도는 삶에 대한 탄식을 쏟아내었다. 그러한 와중에도 숙질남매의 돈목을 강조하였다. 어윤적의 소망은 하루빨리 오백년 부모국에 돌아가 ‘친산성묘(親山省墓), 천륜낙스(天倫樂事), 친척정화(親戚情話)’의 무궁한 근심과 회포를 풀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끝내 그 회포를 풀지 못하고 1933년 10월 12일 서간도 감창에서 87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감하였고 서간도 石牆溝에 묻혔다.



『萬里初程(만니초정)』 수록 어윤적 발신 편지(수신자 종질부 임이재). 손부 고희류씨의 14세 때 필체이다.

는 다만 한되는 거슨 형제 숙질 조손 남녀을 풍진 남북의 훗쳐 노소 죽은 덜 엇지 눈을 감으리요. 벽히청천야 〽월은 조선 중국이 다 보련마는 남지북풍 시 〽몽은 오산초수 막켜씨니 비월하기 어렵도다.”

23) 『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3]. “칠십 여년 광음을 허비하고 아직 양계의 잇시나 무이 말하논 송중이라”

24) 『극재일기』, 1917.11.10. “是月. 付漣川朴妹·金浦沈妹家·陽智具妹家三處. 眞諺書信. ○又付大德里女李氏婦. 九芳里姪女李氏婦. 葛坪姪女宋氏婦. 開安從姪婦任氏. 書信略叙永訣之意.”



### 3.2. 魚氏(연천): “청국언 어디며 서간도는 어디야”

연천 누이 어씨(1857.11.21.~?)는 魚浚愚(1823~1892)와 안동김씨 부부의 4남 3녀 중 첫째 딸로 어윤적의 손아래 누이이다. 남편은 朴膺淵이다. 1873년 10월 박응연과 결혼하여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에서 살았는데, 어윤적은 이 누이를 ‘연천 박매’라고 불렀다. 박응연은 1908년(무신) 11월 연천에서 순의하였다.<sup>25)</sup> 연천누이 어씨의 편지는 오빠 어윤적에게 발신하고 수신한 편지 각 1건이 『萬里初程(만니초정)』에 수록되어 있고, 고모입장에서 조카 어취선에게 발신한 낱장편지 1건이 전해지고 있다. 다음은 오빠 어윤적에게 발신한 편지의 일부이다.

“빈 지 사십여 년에 편지도 한 번 못하였사오니 동기간 정리(情理)에 답답할 뿐 아니라 하물며 만리타국의 각각 사니 천리 인정이 어떠하오리까? 중국에 가신 후로 주야 그리운 마음 가슴에 쌓이고 쌓여, 밤이면 어두운 캄캄한 밤에 눈이 눈물로 얼룩지고, 낮이면 밝고 밝은 천지에 정신이 어쩔 줄 몰라 들락날락 미친 사람 같이 마음을 정할 수가 없어 아이에게 묻는 말이, 청나라는 어디며 서간도는 어디냐? 한즉 아이의 말이 청나라는 북편이요, 서간도는 서편이라 하기에, 날마다 대문 밖으로 나서면 서북을 향하여 바라보니, 산은 첩첩천의 봉우리요, 물은 거둑 쌓여있는지라 사시는 데는 알 수 없고, 만 리 먼 하늘에 보이니 구름이요, 한쪽 면에 흐르나니 눈물이라, 울울(鬱鬱)한 회포를 한숨으로 섞어 쉬고 간절한 심회를 어쩔 수 없어 억누르고 대문 앞에 앉았으니,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많사와 몇몇 감정이 북받쳐 올라 한참토록 앉아서 보다가 다시 돌려 생각하니, 만 리 타향에 사시는 오라버님도 응당 나와 같이 마음은 같으시려니와, 노인 근력의 어찌 오시랴 하고 방으로 도로 들어 와 생각하면 무엇 하라 속절없는 헛일이라 그만 두자 하나 그 이튼 날 밝아오면 어제 마음 간데없고 뵈고 싶은 마음 심장으로 솟아나 이 세상 끈기 어려운 건 천리(天理) 인정(人情)이라하고 지내던 차에 ... (하략) ... ”<sup>26)</sup>(1917.8.19.)

위의 편지 내용은 이렇다. ㉠빈 지 40여 사십여 년이 되도록 편지 한 번도 못하였다. ㉡동기간에 만리타국에 각각 떨어져 살고 있으니 천리의 인정이 어떠하겠는가? ㉢오라버니가 중국에 가신 뒤로 밤낮으로 그리운 마음이 가슴에 쌓이고 쌓여있다, ㉣캄캄한 밤이면 눈물로 얼룩

25) 어윤적, 『극재일기』, 1873년(계유) 冬. “長妹. 歸于密陽朴膺淵.” ○1908년(무신) 11월. “十一月. 始聞妹夫朴膺淵. 殉義於漣川地.” 어씨는 남편 박응연의 죽음을 “가군이 전장의 오사하였시니 심전 한이온다”(『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12])로 표현하였다.

26) 『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12]. “빈 지 사십여 년의 상셔도 한 번 못하였스오니 동기간 정리에 답ᄃᆞᆫ 홀뿐 아니라 우항 만이 타국의 각거호오니 천이 인정이 웃셔호릿가 중국의 가신 후로 주야 그리운 마음 흥격의 쓰이고 쓰이여 밤이면 침ᄃᆞᆫ 칠야의 눈이 반ᄃᆞᆫ 호고 낮이면 명ᄃᆞᆫ 천지의 정신이 황ᄃᆞᆫ 하여 들락날락 미친 사람 갖치 마음을 정할 수가 바니옵서 아히더러 묻는 말리 청국언 어디며 서간도는 어디야 호온지 아히 말리 청국은 북편이요 서간도는 서편이라 호옵기에 날마다 다문 밖게 곳 나서면 서북을 향하여 바라보니 산은 첩ᄃᆞᆫ 천봉니요 물은 증ᄃᆞᆫ 만중니라 사시는 데 알수없고 만이장공의 뵈이난 니 구름이요 일척 단면의 흐르니 눈물이라 울ᄃᆞᆫ 회포를 한숨으로 섞거 쉬고 간절한 심회를 강잉호야 억제호고 다문 압페 안주시니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갖튼이도 만스와셔 몇ᄃᆞᆫ치 속이는 괴이욱히 안조보다 다시 풀쳐 심각호니 만이 타향의 사시는 오라버님도 응당 날과 갖치 마음은 갖트시려니와 노인 근력의 웃지 오시랴호고 방으로 더러 와 심각호면 무얼하라 속절없는 헛일이라 그만 두조호나 그 이튼 날 밝아오면 어제 마음 간데없고 뵈고 싶은 마음 심장으로 솟스나 이 세상 끈기 어려운 건 천이 인정이라호고 지내던 차의 ... (하략) ... ”

지고, 낮이면 정신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들락날락 미친 사람처럼 마음을 안정할 수가 없다. ㉠아이에게 “청나라는 어디며 서간도는 어디냐?”고 물어 본다.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청나라는 북편이요, 서간도는 서편이라” 하기에 날마다 대문 밖으로 나서 서북쪽을 향하여 바라본다. ㉢사시는 데는 알 수 없고, 만 리 먼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매 눈물이 절로 흐른다. ㉣울적한 회포 간절한 생각을 억누르고 대문 앞에 앉아 있다. ㉤복받치는 감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참동안 바라본다. ㉥만 리 타향에 사시는 오라버님도 응당 나와 같은 마음 일 꺼라 생각한다. ㉦노인 근력에 어떻게 오실 수 있으랴? 그렇게 마음먹고 방으로 도로 들어와 곰곰 생각에 빠지나 속절없는 헛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튿날이 밝아오면 뵈고 싶은 마음이 심장에서 솟아난다. ㉨이 세상에 끊기 어려운 것이 천리 인정이라 생각하고 지낸다.

연천누이 어씨는 이 편지에서 오빠를 만난 지 40여 년이나 되었다고 말하였다. 어씨는 1873년 17세에 결혼하여 이 편지를 쓴 1917년에 이르도록 친정오빠 어윤적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정황과, 그에 따른 혈육의 사무치는 정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1917년 11월은 어씨의 환갑일이어서 편지를 쓰는 감회가 더욱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들에게 “청나라는 어디며 서간도는 어디냐?” 묻고, “청나라는 북편이요, 서간도는 서편이라”고 대답하는 내용, 오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미친 사람처럼 대문 밖을 들락날락 배회하며 눈물 흘리는 상황에 대한 묘사는 동기간의 애끓는 정을 읽어 내기에 충분하다하겠다.



함종어씨(박응연 처)가 조카 어취선에게 보낸 편지. 1934.8.26.  
이 편지의 내용은 오빠 어윤적이 환국하지 못한 채, 서간도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天崩地陷] 아픔”이라면서, 상주인 조카 어취선을 위로한 것이다.

### 3.3. 魚氏(김포): “동귀 남미간 이 세상의셔는 상봉할 수 읍스온니”

김포 누이 어씨(1862.11.11.~?)는 어준우와 안동김씨 부부의 4남 3녀 중 둘째 딸로 어윤적의 둘째 누이이다. 남편은 沈宜瓚이고 2남을 낳았다. 1879년 봄 심의찬과 결혼하여 경기도 김포 검단 당하리 광명에 살았는데,<sup>27)</sup> 어윤적은 이 누이를 ‘김포 심매’라고 불렀다. 김포누이

어씨의 편지는 오빠 어윤적과 조카 어취선에게 한 봉투에 넣어 우체로 발신한 낱장편지 1통이 전해진다. 다음은 오빠 어윤적과 조카 어취선에게 쓴 편지의 일부이다.

① “오라버님 전상서. 동기 남매간 천 만 리 밖에서 잇은 듯 소식조차 모르오니 원통 절박한 일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중략)… 오라버님 나이도 많으신데 못 보실 일을 보시고 오죽 기력이 끊어지려 하실까 멀리서 뵈는 듯 비창(悲愴)한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동기 남매간에 이 세상에서는 상봉할 수 없사오니 다음 생에 가서 상봉하오리까. 슬프고 슬픈 마음 한량없습니다. …(하략) …”<sup>28)</sup>(1931.3.8.)

② “조카보시오. 남매 숙질간에 서로 떠난 지 수십 년인데 만나 보던 못 한들 서신조차 통하지 못하니 이런 절박원통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갑복(甲福)을 잃었다니 멀리서 듣고 놀랍고 불쌍한 마음 총량없으며 가운(家運)이 불길해서 그러하니 아버지께서 그 참혹한 모습을 보시고 오죽 기력이 끊어지실까? 뵈기 오죽 죄송스러울까? 부자 분 모습이 멀리서 눈에 어리어 보는 듯 슬픈 마음을 어찌 억제하리오. …(하략) …”<sup>29)</sup>(1931.3.8.)

위의 편지 ①과②는 甲福의 죽음을 위로하는 편지이다. 갑복은 魚泳德(1903.6.28.~1929.2.8.)의 아명으로 어윤적의 손자이다. 어영덕은 어윤적의 셋째아들 魚敎善과 경주이씨의 아들로 태어나 어취선의 양자로 대를 이었다. 어영덕은 1910년 8세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서간도 망명길에 올랐다. 15세에 고흥류씨와 혼인하여 2남 2녀의 아이를 낳았는데 27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어영덕은 이미 4세 때에 독서하며 붓을 잡고 노는 모습이 범상치 않아 주변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sup>30)</sup> 5세 때 <雨中>시 1구 “風雨山不傾”을 짓기도 하였고,<sup>31)</sup> 7세 때에는 “水深水淺分江海, 山高山卑判天地”라는 시를 지어 ‘奇才’ 소리를 들었다. 주변 사람들의 총망을 받았었다.<sup>32)</sup>

어윤적은 그런 손자 어영덕의 학문 성장을 위해 비상한 관심과 가르침을 해 왔었다. 서간도 생활에서 희망과도 같았던 손자가 죽자 함종어씨 집안은 큰 충격에 빠졌다. 김포에 사는 어씨는 누이와 고모의 입장에서 어윤적과 어취선에게 편지를 써 그 참혹하고 비통한 슬픔을 함께 하고 위로하였다.

27) 어윤적, 『극재일기』, 1879년(기묘) 봄. “仲妹. 歸于金浦光明里. 靑松沈宜瓊黃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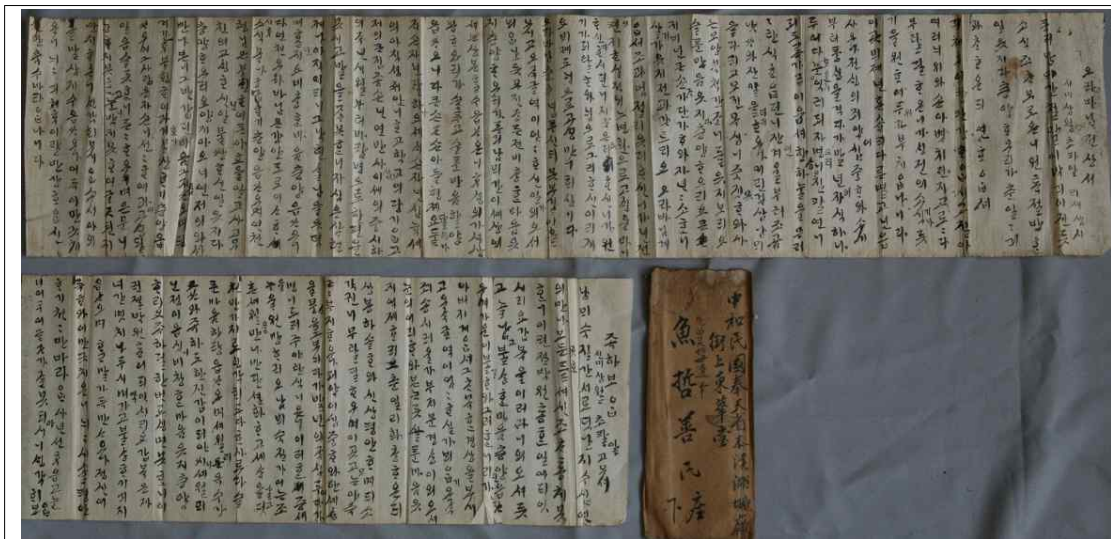
28) “오라바님 전상서. 동기 남매간 철 말이 박이 이진 듯 소식조차 모르오니 원통 절박한 일 웃지 다 총양 호오리가. …(중략)… 오라바님 춘추 녀푸신디 못보실 이을 보시고 오죽 글역이 엄ᄃᆞᆫ 하신 일가 외오서 뵈옵난 듯 모진 궁든 접 비총흔 마음 웃지 총양호오리가 동기남매간 이 세상의셔는 상봉할 수 업스온니 후싱의 가서 상봉호오리가 슬푸고 슬픈 마음 할양업스오니다. …(하략)…”(1931.3.8.)

29) “족하보옵 남미숙질 간 서로 뒸난 지 수십 연의 만나 보던 못 한들 서신조차 통치 못하니 이런 절박 원통한 일 어디 잇시리오. 갑복을 이러짜니 외오서 뒸고 놀납고 불송흔 마음 총양업스으며 가운이 불길호와 그러하니 리가 아버지겨옵서 그 초목흔 경상을 보시고오죽 글역이 엄ᄃᆞᆫ 하실까 뵈옵기 오죽 죄송시려울가 부지분 경승이 외오서 누의 어리호와 본는 듯 실픈 마음 웃지 억제하리오. …(하략)…”(1931.3.8.)

30) 『가승』, “丙午 十二月 ○從子甲復畢讀. 養正要訓. 操觚弄墨. 頗異凡兒. 奇幸奇幸.”

31) 『극재일기』 1907(정미).3.25. “福孫讀啓蒙篇. ○福孫雨中作詩云. ‘風雨山不傾’.”

32) 『극재일기』 1909(기유).12.1. “鬪齋卞友來. 命福孫作詩. 卽成一句云. ‘水深水淺分江海, 山高山卑判天地.’ 鬪齋撫背曰 奇才也.”



함종어씨(심익찬 처)가 오빠 어윤적(상)과 조카 어취선(하)에게 보낸 편지. 1931.3.8

### 3.4. 魚順伊(갈평리): “어니 세월의 다시 형제 숙질을 뵈올난지”

魚順伊(1874.3.25.~1946.6.10.)는 魚允綽(1845~1881)과 칠원윤씨(1846~1905)의 첫째 딸로 광주 고덕리에서 태어났다. 남편은 剛窩 宋殷憲(1876~1919), 『극재일기』에는 宋勉憲으로 기록되어 있다.<sup>33)</sup> 어순이의 행적은 남편의 문집 『剛窩集』坤에 <夫人魚氏行錄>에 실려 있다. <부인어씨행록>에 의하면, 어씨는 평소에 소설잡서를 멀리하고 우암 송시열의 <계녀서> 읽기를 가장 좋아하여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한다. 인현왕후의 사실이 실려 있는 한글본 실록을 손으로 베껴 쓰고 읽으며 인현왕후의 성덕을 깊이 추앙하였다고 한다.<sup>34)</sup>

『萬里初程(만니초정)』에는 질녀 어순이가 작은아버지 어윤적에게 발신한 편지 3건 [편지-4,7,8], 작은아버지 어윤적으로부터 수신한 편지 1건 [편지-2]이 수록되어 있다. 편지에서 어윤적은 어순이를 ‘송집’, 어순이는 어윤적을 ‘작은아버님’으로 호칭하고 있다. 어순이는 어윤적에게 자신을 ‘숙질·질녀·갈별 질녀’로 지칭하였다. ‘갈별’은 충북 보은군 마로면 갈평리 갈별 마을을 가리킨다. 다음 편지는 [편지-4]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의 일부이다.

“천우신조하여 천만 의외에 임자년(1912) 가을 칠월에 숙리 산천에서 춘몽같이 뵈옵고 수연(睽宴) 그리던 회포도 위로치 못하옵고 진지 한 때도 불승[不成] 모양 하시고 훌훌히 회정(回程)하시니 청가(晴嘉)한 일일은 흰 구름이 가린듯하여 울울(鬱鬱) 하던 마음이 지금도 생각하면 미칠 듯한 마음 어찌 다 형용하오리까? …(중략)… 어느 세월에 다시 형제 숙질을 다시 뵈는지? …(중략)… 천륜의 지극한 정을 조금 생각하다가 이 때를 당하오니 철석(鐵石)인들 어찌 온전하리까? 마음은 항상 순풍 같사오나 몸은 어찌 무겁던지 육질 년을 진퇴

33) 송은헌은 睡翁 宋甲祚의 11대 후손이다. 어윤적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1896년 충북 제천에서 거의한 류인석 의진에 군자금을 제공하였고, 1919년 항일 문구를 넣은 스승의 제문으로 인해 체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송은헌은 1995년 건국포장에 추서되었고 대전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되었다. (『보은군지』, 보은군지편찬위원회, 1970, 46면.)

34) 『강와집』 곤 부록. 김성환 저, <夫人魚氏行錄>. “小説雜類. 不正之書. 一切不接於目. 最好讀宋子戎女書. 以爲終身佩服之符. 得仁顯王后諺翻實錄. 深仰聖德. 手自傳寫. 時時披讀.”

중에 젖었으니 가련한 것이 사람입니다. 바람은 손발이 없어도 천하 각국을 돌아보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세상에 천하와 천리를 왕래 못하오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오리까? …(중략)… 작은아버지 형제분 설에 다시 한 번 앉아서 첩첩(疊疊)한 심회를 위로하는 소원 이루어지면 하는 바입니다.”<sup>35)</sup>(1918.1.6.)

위 편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자년(1912) 7월에 속리산에서 봄꿈처럼 덧없이 만났다 헤어졌다. ㉡생신 상을 차려드리려 하였으나, 승처럼 식사하시고 홀연히 돌아갔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밝은 해와 달이 구름에 가린 것처럼 마음이 우울하여 미칠 듯하다. ㉣어느 세월에 형제 숙질을 다시 만날 수 있겠는가. ㉤천륜의 지극한 정을 생각하면 철석(鐵石)도 다 녹아내릴 것 같다. ㉥마음은 순풍 같으나 몸은 무거워 육칠 년을 진퇴 중에 젖어있어 가련하다. ㉦바람은 손발이 없어도 천하 각국을 돌아다니는데, 사람으로 천리를 왕래 못하니 슬프다. ㉧작은아버지 형제분을 설에 다시 만나 첩첩히 쌓인 심회를 위로하고 싶다 이다.

어윤적과 어윤혁은 1912년(임자) 4월 16일~7월 21일 일정으로 일시 환국하여 청주·보은을 두루 방문하며 친족 사우들을 만나고 성묘하였다. 어윤적은 5월 6일 동생 어윤혁과 함께 갈평 송은헌 가를 방문하여 하루를 자며 방문객들과 환담하였다.<sup>36)</sup> 6월 23일 개안리 종질 가에서 자고, 6월 25일 죽은 아내 구씨의 묘소에 하직 성묘 하고 서간도 회정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때 질녀 어순이는 어윤적의 옷을 부여잡고 하염없는 눈물로 이별하였는데, 숙질간의 그 슬픈 정회가 깊었다.<sup>37)</sup>

어순이는 아버지 어윤적이 37세로 일찍 졸하였으므로, 작은아버지 어윤적을 각별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남편 송은헌도 일찍이 어윤적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므로 숙질 관계가 더 돈독하였을 것이다. ㉢에서 그 때 식사 한 끼 제대로 대접해 드리지 못한 일을 생각하면 ‘미칠 듯하다’는 표현, ㉤에서 천륜의 지극한 정을 생각하면 ‘철석(鐵石)도 다 녹아내릴 것 같다’는 말 등에서 큰집 질녀 어순이의 작은아버지 어윤적에 대한 지극하고 각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 3.5. 어능녀(방터골): “잠들기 전 이질 슈 읍사오이다”

어능녀는 魚允弼(1854~1892)과 함양박씨(1855~1907)의 둘째 딸로 李愚旼(1891.11.06.~1943.5.7.)의 처이다. 편지에서 ‘방터골 질녀’로 불린다. 방터골은 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방리이다. 이우민은 李愚濶(함종세계)·李晟(함종어씨세보) 등의 이명으로도 불렸다. 이우민은 1919년 4월 충북 괴산 지역의 만세시위에 참가한 뒤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전부원과 의열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sup>38)</sup>

35) 『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4]. “천우신조하야 천만 으외의 임자년 추 칠월의 속이산천의셔 춘몽가치 비읍고 슈연 그리던 회포도 위로치 못호읍고 진지 혼 씨도 불승 모양호시고 홀리 회정호신니 청가혼 일월언 흰구름이 가련난듯호회 울호던 마음 지금도 싱각호면 밋칠듯 호은 마음 웃지 다 허용호오릿가. …(중략)… 어니 세월의 다시 형제 숙질을 다시 뵈올난 지 …(중략)… 철윤지정을 조금 싱각호오이 잇디을 당호오니 철석인들 웃지 온전호오릿가. 마음은 한상 순풍 갓사오나 몸은 웃지 무겁던지 육칠 연을 진퇴 중의 저호신이 가련한 거시 사름이로다. 바람은 손발리 읍셔도 천호 각국을 도라보논디 하물며 사람으로 세상의 춘호와 철이 왕니 못호오니 웃지 실푸지 아이호오릿가. …(중략)… 자근아바지 형제분 실의 다시 혼 번 안져셔 첩호 심회를 위로호기 소원 이되심 호는 바이오.”

36) 『극재일기』, 1912.5.6. “○六日. 與公理往葛坪宋婿家. … 仍宿.”

37) 『극재일기』, 1912.6.25. “○廿五. 與李友用和. 出山歸路. 侄女. 牽衣泣訣. 傷懷甚矣. 予獨往妻山拜辭而下. 歷入開安從侄家.”

『萬里初程(만니초정)』에는 방터골에 사는 질녀 어능녀가 작은아버지 어윤적에게 발신한 편지 2건 [편지-5.6], 작은아버지 어윤적으로 부터 수신한 편지 1건 [편지-1]이 수록되어 있다. 편지에서 어윤적은 어능녀를 ‘질녀’, 어능녀는 어윤적을 ‘작은아버님’으로 호칭하고 있다. 어능녀는 어윤적에게 자신을 지칭할 때 ‘사질녀·방터골 질녀’라 말하였다. 다음 편지는 『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5]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의 일부이다.

① “작은아버님 춘추 응소하신 터에 백리 천리의 고향 생각 하시는 지경(地境)과, 수천 리 밖에 멀리 있어도 뵈옵는 듯 잠들기 전 잊을 수 없사옵니다. 이왕 세상을 잘못 만나 그러하시던지 생애로 쫓겨 그러하시던지 고향 생각 과하게 하지 마시고 천금 같은 귀체(貴體)를 십분 보중(保重) 하시기를 천만번 바라옵나이다. …(중략)… 저는 쓸데없이 물 같은 세월은 손살 같이 가는데 형제숙질을 천 리 만 리에 무단히 이별하고 조용히 생각하면 나오는 것은 눈물이요, 이 해 가고 저 해 가니 허황하고 맹랑한 마음 낭랑(朗朗)한 화원(火源)이나 혁혁(赫赫)한 등불 밑에 어떠타 형언하오리오? 이러하게 애가 탄 들 백 리 천 리의 빈 마음뿐입니다. 시절이나 편안하오면 명년(明年) 춘간(春間) 한 번 가서 형제숙질이 다시 만나 반가이 뵈올 까 하오나 기필(期必)할 수 없나이다.”<sup>39)</sup>(1918.11.29.)

② “이번에 넷째작은아버님을 뵈오니 한가지로 되시고 가고 싶은 생각 간절하나 남에게 매인 몸이니 달리 변통 없으나 하회(下懷) 섭섭한 일은 어리어 취한 듯 실성한 듯 하온 일, 어떠하다 형언할 길 없습시다.”<sup>40)</sup>(발신일 없음)

위 편지 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은아버지 백리 천리 타국에서 고향 생각하시는 형편을 생각해 본다. ㉡비록 수천 리 밖 멀리 있는 질녀이지만 잠들기 전에 작은아버지 얼굴을 보는 듯 잊을 수가 없다. ㉢세상을 잘 못 만나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생애가 그러해서 그러한 것인지 고향생각 과하게 하지 말고 귀한 몸을 잘 유지하기 바란다. ㉣나는 형제숙질 이별하고, 조용히 생각하면 나오는 것이 눈물이다. ㉤이 허황하고 맹랑한 마음을 어찌 다 형언

38) 이우민은 충북 청원 출신으로 1920년 5월 상해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주로 선전부원으로 활동하였다. 중국 관내 지역의 호북성·호남성·광둥성·광서성 등지에서 한국인들을 동지로 규합하거나 중국인을 상대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등 한국 독립운동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데 힘을 쏟았다. 1922년 독립운동가 양성을 위해 육영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1926년 4월 柳世觀 등과 함께 천진의 조선인들을 규합하여 독립운동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韓僑團을 조직하였다. 한교단은 비밀유지를 위하여 겉으로는 친목단체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다물단과 의열단의 정신을 계승한 독립운동단체였다. 천진 일대에서 의열단의 의거를 지원하며 활동하던 중 1930년 7월 경 일경에 붙잡혀, 1930년 4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1934년 5월 7일 만주 동경성에서 서거하였다. 199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대전현충원 애국지사 3묘역에 안장되었다.(대전 현충원 묘지석 내용 참조)

39) 『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5]. “자근아바님 춘추 응소하신 터의 백이 철이의 고향싱각 하시는 경과 슈철지 위의 외오 잇사와도 뵈옵는듯 잠들기 전 이질 슈 읍사오이다. 이왕 세상을 잘못 만나 그러하시던지 심이로조쳐 그러하시던지 고향 싱각 과이 마르시고 천금귀체를 십분 보중하시기를 천만번 바라옵나이다. …(중략)… 제는 쓸디읍시 물갓튼 세월은 살갓치 가난디 형제숙질을 철이 말이의 무단이 ㄹ별하고 조용 싱각하면 나오난 눈물이요 이 히 가고 저 히 가니 허왕하고 멩랑한 마음 낭 ㄹ한 화원이노 혁 ㄹ한 등불 밋히 웃더타 형언하오리오. 이러하게 이각된들 백이 철이의 빈 마음 뿐이로다. 시절이노 편안하오면 명년 춘간 한 번 가서 형제숙질의 다시 만는 반가이 뵈올가 하오나 기필할 슈 읍나이다.”

40) “『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6]. ”이번 네자근아바님을 뵈오니 훈가지 되시고 가고시분 싱각 간절 하나 남의게 미인 몸이니 달이 변통 읍시나 하회 섭 ㄹ하온 일은 어리어 취한 듯 실성하듯 하온 일 웃더타 형언할 길 읍사오이다.”



하겠는가. ㉔애가 탄들 백 리 천 리의 빈 마음뿐이다. ㉕시절이 편안하면 내년 봄에 한 번 가고자 하나 기약할 수 없다.

편지 ㉔는 1912년(임자) 어윤적·魚允澤(1860~1942)이 일시 환국한 때에 아버지 형제들을 만나 그 회포가 남다른 바, 특히 넷째 작은아버지 어윤역을 만나 정갈한 식사한 번 대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섭섭함에 대하여 쓴 것이다. 방터골 질녀 어능녀는 그 때 일을 ‘어리어 취한 듯, 실성한 듯’ 미칠 것만 같은 마음을 형언할 길이 없다고 말하였다. 속질간의 깊고 짙은 정리를 읽을 수 있다.

#### 4. 어윤적 가 한글편지의 특징 - 결론을 곁하여

한글로 쓴 편지 한 통은 불운한 시대를 맞닥뜨려 유리표박하는 어윤적 가 사람들의 공간과 시간의 간극을 이어 준 유일한 도구였다. 어윤적이 서간도에서의 삶 속에서 고국의 각 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편지였다. 고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이다. 위 표2 [한글편지의 발·수신 현황]에 있는 17건의 한글편지는 오빠가 여동생들에게, 여동생들이 오빠에게, 작은아버지가 질녀들에게, 질녀들이 작은아버지에게, 종숙이 종질부에게, 종질부가 종숙에게, 고모가 조카에게, 시누이가 올케에게 보내는 가족 연서이다.

전통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특히 여성은 혼인 후 친정 가족들과의 대면이 일생에 몇 차례 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말이 아닌 글, 곧 편지를 통하여 소통하였다. 편지 속 글씨체는 그 사람의 얼굴이요, 내용은 입으로 나누는 대화와 다름없었다. 편지는 단순한 소식 그 이상의 의미였다 하겠다. 더구나 어윤적 가족은 타국과 본국, 망명자와 남아있는 자의 상황이어서 “뵈온 지 사십여 연”이라는 편지도 있게 된 것이다. 40여 년의 세월을 녹여내는 그 삶의 역사와 애환이 편지 한 통에 응축되어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어윤적 가 한글편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간도 망명 가족의 유리표박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남녀노소 20여 명 대가족들의 망명생활 중 가장 큰 문제는 식량 확보와 거주지의 해결이었다. 때문에 서간도 일대를 정처 없이 이합집산 해가며 경작지를 찾아 이주하였다. 長咀子, 賽馬集(塞馬蹄), 城廠, 石墻溝, 閻家嶺, 三家子 등은 북한 접경지역 단동과 중국 요녕성 심양 사이에 들어있는 지역들이다. 이 지역들을 돌고 돌며 30여 년의 세월을 유랑하였다. 어윤적은 만리타국에서 마름 풀이나 버들가지가 바람에 이리저리 쓸리듯이 동서남북 정처 없이 굴러다니다가 어디 가서 죽을지 모르겠다거나, 명년에는 또 어디로 가야할지 거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말하면서 그런 자신의 삶을 냉소하였다.

① “오백여년 부모국을 하루아침에 하직하고 나니 친척의 기분 묘하고 백수(白首) 풍진(風塵)의 만리타국 유리표박(遊離漂泊)하여 마름 풀과 버들가지를 따라 동서남북에 정처 없이 굴러다니니 어디 가서 죽을지 모르겠다.”(어윤적, 1917.11.10.)<sup>41)</sup>

② “형은 세월을 헛되이 다 보내고 탄식우환 중에 금년 농사는 다행히 낭패가 없어 추운 겨울을 편안히 지낼 것 같아 아직은 걱정 없으나, 명년은 또 어디로 갈 지 정처가 없으니 생

41) 『萬里初程(만리초정)』 편지-1. “오백여 연 부모국을 일쫓의 하직하고 니친척 기분 묘하고 백수 풍진의 말리 타국 유리표박하여 마름풀과 버들기아지를 썩라 동서남북의 정터업시 굴러 다니 〰 어디 가서 죽을씨 모르겠다”

애가 우습도다.”(어윤적, 1917.9.26.)<sup>42)</sup>

③“형제자질 수다한 딸린 식구들을 데리고 타향의 떠돌아 일정한 거처 없이 동서남북 유랑 하여 질병이 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어윤적, 1917.9.26.)<sup>43)</sup>

부족한 식량과 유랑생활은 불안한 심리상태로 이어졌고, 이는 질병을 유발시켰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죽기를 거듭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홍역과 전염병, 결핍된 영양상태 등으로 요절하여 살아남은 아이를 손에 꼽을 정도였다. 어윤적은 그 참혹한 액운에 대하여 “나라를 넘어온 뒤 권속이 단 하루도 안정된 날이 없으니, 고통스럽고 고통스럽다.”<sup>44)</sup> “밤에 쌍둥이 손녀가 또 죽었다. 5일 이내에 3명의 손자와 손녀가 참혹한 죽음을 당했으니 집안 액운이 가혹하다. 슬픈 생각을 견디기 어렵고 심정을 안정시킬 수가 없다. 하물며 떠돌며 영락한 시기에 이런 참혹한 액운을 당하니 통탄스럽다.”<sup>45)</sup> 라고 탄식하였다. 나라를 빼앗겨 亡命守義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다.

둘째,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망명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끓는 가족언어가 표현되어 있다. 어윤적 가 사람들은 매 편지에서 “천륜지정·천륜낙사·친척정화·동기남매·남매친척·동기간 정회·동기간 정·형제숙질·숙질간·여러 남매·형제자질·생질남매·생질형제·종형제 내외·자손남녀” 등의 가족관계 호칭어를 자주 쓰고 있다. 이는 어윤적 가 한글편지의 특성으로 읽혀지는 부분이다. 중국과 본국이라는 쉽게 넘나들 수 없는 공간 분리 속에서 가족 상호간의 애착관계가 더 긴밀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편지를 쓰는 이와 받는 이 모두 주야 그리운 마음으로 잠 못 드는 심정을 전달하였다.

연천 거주 박응연 처 어씨는 편지에서 친정오라버니 어윤적을 만나 본 것이 사십여 년이나 되었다고 말하였다.<sup>46)</sup> 그 세월 속에서 서로서로 ‘위로한다·안심해라·무탈하다·슬프다·다행이다·그런 다행 없도다·기특하다·염려마라·소식 듣기 원한다·그립다·불쌍하다·원통하다·원통 슬프다·비참하다·보는 듯하다·눈물이 흐른다·너무 슬퍼마라·걱정하지 마라·어찌 다 기록 하리오·뵈는 듯 하오이다·마음뿐입니다·든든 하오이다·잇을 수 없사오이다·간절 하오이다·감사 하오이다·걱정이로소이다·회포를 다 하오리까·답답하여이다·측연하여이다·심회 동동 금치 못하나이다·만행 이웁나이다·원통 하웁나이다·뵈는듯하웁니다·가슴이 사무칩니다·미칠 것만 같습니다’ 등의 공감 언어를 전하며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눈물 흘린다고 말하였다.

셋째, 일제에 의해 국권을 찬탈당한 백성의 탄식이 묻어나 있다. 어윤적은 고국의 상황이 ‘범의 꼬리를 밟고 봄 어름을 건너는 모양(1917.11.10.)’, ‘숲을 잃은 새와 물 밖에 나온 고기 같다(1917.11.10.)’고 비유하였다. 오백 년 부모 나라를 하루아침에 하직하고 정처 없이 떠돌며 고생하는 “이 망칙한 세상·이 풍진세상”을 탄식하며, 남의 나라에서 우환으로 세월을 다

42) 『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11]. “사형은 세월을 헛되이 다 보니고 탄식우환 중 금연 농수논 다형이 낭피업서 치운 겨울 안과할뜻 하니 아직은 걱정업시나 명연은 또 어디로 갈지 정처가 업시니 심이가 우습도다.”(어윤적, 1917.9.26.)

43) 『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11]. “형제자질 수다 소술을 다리고 타향의 류리하여 정소업시 동서남북의 포박하여 질병이 몸의 떠나지 아니하고”

44) 『극재일기』, 경술년(1910) 7월 초. “用兒以胸腹痛。幾死甦生。越國以後。十餘眷集。無一日安靜。苦哉!苦哉!”

45) 『극재일기』, 을묘년(1915) 1월 6일. “夜, 雙生女孫。又化去。五日之內。三個孫子女兒慘。家厄酷矣。傷懷難耐。不能定情。況在流離瑣尾之際。當此慘厄。慟歎。”

46) 『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12]. “뵈온지 사십여 연의 상셔도 흔 번 못했스오니”



흘려보낸 것을 안타까워했다.

넷째. 서간도 독립운동사의 일단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들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독립운동에 투신한 사람들은 신분의 노출을 염려하여 이름도 자주 바꾸고, 가족들에게조차도 거처를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가족들의 오해와 걱정 속에 있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다음 편지는 어윤적이 방터골 질녀 어능녀에게, 종질부 임이재에게 각각 보낸 편지이다.

① “너의 낭군은 금월 초팔일 상해(上海)에서 편지 부쳐 자세한 소식을 들으니 연이어 평안이 지내고, 며칠 후면 천진(天津)으로 오겠으니 그리로 답장하라 하였다. 과히 염려마라. 소년 예기(銳氣)의 허랑(虛浪)한 마음을 두고 중국 남과 북 만여 리를 무단히 왕래하니 초초(悄悄)한 사나이가 아니다. 그렇다하여도 과히 낭패로운 일은 없으니 도리어 다행이다.” (어윤적, 1917.11.10.)<sup>47)</sup>

② “무산 팔주은지 전싱 죄가 지둥호와 그려은지 두 흘러이가 이 세상의 스오니 고궤이 절통호읍고 성희 아비도 나간 체 녹년의 드러습고 편지 본 제는 슝 년이읍고 전편 듯스오니 황히도겨 무수로 단니다 지금은 한인단으로 단이고 첩 어더다 호오니 무스호은 듯 다행이오나 어능디 집 싱각이 나서 환고향 호라 호난지 심이 답궤 조식들 성취호을 디 되오니 답궤 남미간 혼인 길이 막히오니 글노 더욱 절통궤궤 분궤호은 심정이로다. 못 알외읍노이다.”<sup>48)</sup> (1918.1.20.)

①에서 너의 낭군은 이우민을 가리킨다. 이우민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의열단 단원으로 상해와 중국 일대를 두루 뛰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인물이다. 위 편지에서 중부 어윤적은 질녀에게 “과히 염려 말라. 네 남편은 초초한 사나이가 아니다.”라는 말로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우민의 아내 어능녀는 남편의 생사와 안위를 걱정하였고, 그가 무슨 일을 하며 돌아다니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는지 모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②의 편지는 종질부 임이재가 종숙 어윤적에게 자신의 남편 ‘성희 아비’에 대한 걱정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집 나간 지 6년, 편지 받아본 건 3년인데 들리는 말에, 황해도를 무수히 다니다가 지금은 ‘한인단’을 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단에 대한 구체적 사실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혹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된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상에서 일제강점기 망명가족 어윤적 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 특히 가족 이기주의와 인구절벽을 우려하는 작

47) 『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1]. “너의 낭군은 금월 초팔일 상해로서 편지 부쳐 자세한 소식 드르니 연이어 평안이 지내고 몇칠 후면 천진으로 오기씨니 그리로 답장하라 하였다. 과히 염려마라. 소년 예기의 허랑한 마음을 두고 중국 남북경 만여 리를 무단 왕래하니 초궤호 사나이가 아이라 그려호여도 과히 낭패로운 일은 업시니 도로혀 다행이라.”(어윤적, 1917.11.10.)

48) 『萬里初程(만니초정)』, [편지-9]. “아즈바님 하셔 밧즈와 뵈오니 전의 선구 음용이 시롭스와 심희 처량호읍고 어느 시절의 아즈바님을 뵈와 그림습던 설화을 알외올닛가. 창연궤궤 심희 금치 못호읍노이다. …(중략)… 옷지호와 철이 타국으로들 분니호신고 우리아바님 향녜의논 아즈바님 형테분 게서 싱존호셔 겨신디 뵈읍지 못호오니 창연궤궤 호은 심희 동궤궤 금치 못호읍노이다. …(중략)… 각식고싱 다허다 심화를 안접호와 지니오나 무산 팔주은지 전싱 죄가 지둥호와 그려은지 두 흘러이가 이 세상의 스오니 고궤이 절통호읍고 성희 아비도 나간 체 녹년의 드러습고 편지 본 제는 슝 년이읍고 전편 듯스오니 황히도겨 무수로 단니다 지금은 한인단으로 단이고 첩 어더다 호오니 무스호은 듯 다행이오나 어능디 집 싱각이 나서 환고향 호라 호난지 심이 답궤 조식들 성취호을 디 되오니 답궤 남미간 혼인 길이 막히오니 글노 더욱 절통궤궤 분궤호은 심정이로다. 못 알외읍노이다.”

금의 현실 속에서 100년 전 어윤적 가의 가족애를 그려보게 된다.

[참고문헌]

- 『가승』(어취선 발문)
- 『강와집』(송은헌)
- 『고흥류씨부학공파보』
- 『고흥류씨세보』(고흥류씨중앙총친회)
- 『극재수고』(어윤적)
- 『극재일기』(어윤적)
- 『萬里初程(만니초정)』(고흥류씨 편)
- 『청원함종어씨가간찰Ⅱ』(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 『함종세계』(어윤수 발문)
- 『함종어씨문정공파보』
- 『함종어씨세보』

[참고사이트]

- 독립기념관(i815.or.kr)
- 보은문화원(becc.or.kr)
- 국가보훈처(mpva.go.kr)
-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고문서검색시스템(<http://giho.cnu.ac.kr>)
- 한국고전번역원(itkc.or.kr)